



「물들숲 그림책」 시리즈 ⑧

고추좀잠자리가 높이높이

김항 글 · 김재희 그림 / 양장 / 본문 36쪽 / 220x232(mm) / 가격 11,000원 / 5세부터
ISBN 978-89-491-0311-2 74490 / 978-89-491-0303-7(세트) / 출간일 2014년 8월 26일

간결한 글과 정겨운 세밀화로 담아낸 멋진 하늘의 비행사, 고추좀잠자리의 한살이

「물들숲 그림책」은 친근하면서도 사실적인 그림 덕택에 책을 읽는 내내 자연의 품에 있는 듯한 착각을 일으키게 합니다. 이 책을 읽고 자라는 우리 아이들이 자연에 대해 보다 많이 알게 되어 더욱 자연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성장하리라 믿습니다.

- 최재천 (이화여대 예코과학부 교수, 자연사박물관 관장)

우리나라 물, 들, 숲에 사는 동식물의 한살이를 아름다운 감성으로 담은 생태그림책 꾸러미 「물들숲 그림책」 시리즈의 여덟 번째 책 『고추좀잠자리가 높이높이』가 (주)비룡소에서 출간되었다. 『고추좀잠자리가 높이높이』는 가을에 노랗게 익은 벼 이삭 위로 날아다니는 고추좀잠자리의 생태와 한살이를 간결하고 서정적인 글과 따뜻하고 세밀한 그림으로 담아냈다. 고추좀잠자리는 가을이면 우리나라 황금들녘에서 가장 많이 만날 수 있는 잠자리 종류로, 한여름에 높은 산으로 올라갔다 시원한 가을이 오면 논으로 돌아와 알을 낳는 독특한 생태를 지녔다. 자연과 환경에 관한 글을 많이 쓴 재일 한국인 작가 김항은, 일 년 간 짧게 살다 가는 고추좀잠자리의 이야기를 아이들 눈높이에 맞는 간결하고 리듬감 있는 글로 흥미롭게 들려준다. 어린 시절부터 늘 자연과 가까이 살아왔던 김재희 화가는 3여 년 간 고추좀잠자리를 취재하고 기록한 자료들을 바탕으로 따뜻하고 정겨운 그림을 그려냈다.

아이들은 고추좀잠자리가 알에서 깨어나 열 번 넘게 허물을 벗고 잠자리가 되어 잠깐 살다 알을 낳고 생을 마감하는 과정을 보면서 생명의 소중함과 경이로움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많은 생명을 키워내는 논, 논둑의 소중함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수 있다.

비룡소에서는 앞으로도 물총새, 장수풍뎅이, 달팽이, 도둑개, 버섯, 민들레, 늑대 이야기도 「물들숲 그림책」 시리즈 안에 정성껏 담아낼 계획이다. 책 한 권 한 권 출간할 때마다 어린이도서관에서, 공부방에서, 어린이 전문서점에서, 학교에서 아이들과 같이 놀고 즐기는 생태그림책 강의와 체험 활동도 이어가고 있다.

● 고추좀잠자리의 생태와 한살이를 흥미롭게 담아낸 그림책

잠자리는 알이나 애벌레 때 물속 생활을 하다 성충이 되면 육지 생활로 바뀌는 대표적 곤충이다. 가을이면 황금들녘에서 빨간 잠자리들을 많이 볼 수 있는데, 그중 가장 많이 만날 수 있는 잠자리가 바로 고추좀잠자리이다. 고추좀잠자리는 논에서 태어나 다시 논으로 돌아와 알을 낳는 대표적인 잠자리로, 여름에는 서늘한 산으로 갔다 가을에 논으로 돌아오는 독특한 생태를 지녔다. 김황 작가는 먼 옛날 우리 선조들이 농사를 시작할 때부터 논에 맞추어 진화해 온 고추좀잠자리의 이야기를 통해 생명의 신비로움과 생명의 습지인 논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싶었다고 한다. 시처럼 리듬이 살아 있는 간결한 글로 고추좀잠자리가 알에서 애벌레를 거쳐 성충이 되고, 다시 알을 낳기까지의 험난한 여정을 흥미롭게 들려준다. 고추좀잠자리는 봄에 논물이 따뜻해지면 한꺼번에 알에서 깨어나 애벌레가 되고, 열 번 넘게 허물을 벗은 후 초여름 경에 드디어 잠자리가 된다. 고추좀잠자리는 날이 더워지면 산골짜기 따라, 산길을 따라 높은 산에 오르는 긴 여행을 한다. 높은 산에 올라서는 주로 모기나 하루살이를 잡아먹지만 자기보다 몸집이 큰 된잠잠자리를 잡아먹기도 한다. 그러다 가을이 되면 누렇게 익은 들판으로 돌아와 가을 하늘을 수놓는다. 그리고 짝짓기를 한 후 가을걷이가 끝난 논에 알을 낳고 일 년이라는 짧은 생을 마감한다. 알들은 논에서 겨울을 보내며 이듬해 봄에 다시 깨어난다. 더운 여름, 사람들이 피서를 떠나듯 높은 산으로 여행을 가는 고추좀잠자리의 재미난 이야기가 아이들에게 생명에 대한 호기심과 신비로움을 전해줄 것이다.

● 다채로운 화면과 따뜻한 그림에 담긴 고추좀잠자리의 삶

땀과 정성이 듬뿍 담긴 따뜻한 그림에는 잠자리에 대한 작가의 진한 애정이 배어 있다. 잠자리를 그리는 일은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다. 잠자리는 종류가 많고 아주 조그만 차이로 이름이 다르기도 하다. 비슷하지만 가슴 무늬에 따라 이름이 다르고 날개 살을 그리는 것 또한 만만하지 않다. 또한 날개돋이를 해서 여름을 지나면서 빛깔이 바뀌어 암수가 달라지는 일도 많다. 고추좀잠자리가 그렇다. 여름잠잠자리와 아주 비슷하지만 여름을 지나면서 고추좀잠자리 수컷은 배 부분만 빨갛게 바뀌지만 여름잠잠자리는 가슴과 머리까지 빨갛게 바뀐다. 그래서 잠자리의 한살이를 그리는 일은 꼼꼼하고 긴 관찰과 취재가 필요하다. 2011년 8월 말 첫 취재를 시작으로, 그림을 마치기까지 꼬박 3년 동안 작가는 논과 연못, 늪뿐만 아니라 주변 곳곳을 돌아다니며 취재를 했다. 빠른 비행 속도와 민첩성에 순간순간을 놓쳐 애를 먹었고, 잠자리 애벌레는 적을 피해 비밀스러운 장소에 있다 보니 볼 수 있는 날이 많지 않았다. 잠자리를 볼 수 없는 봄과 겨울엔 벼가 베인 논과 잎 없는 나무를 취재하며 계절의 느낌을 그림에 담아내기 위해 노력했다. 수없이 스케치를 하고, 장면 연출을 수정하고, 색을 담아내는 힘든 과정을 통해 완성된 그림에는 우리 자연과 그 속에서 살아가는 여러 생명들의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 감동을 전한다. 주인공인 고추좀잠자리뿐만 아니라 그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물방개, 올챙이, 소금쟁이, 물자라, 개아재비, 무당거미, 달팽이 등을 찾아보는 재미도 쏠쏠하다.



● 고추좀잠자리에 대한 정보와 잠자리 종류를 담아낸 풍성한 부록

부록에서는 주인공인 고추좀잠자리의 특징을 더 자세히 다루었다. 작지만 최고의 사냥꾼인 잠자리 애벌레의 모양과 고추좀잠자리의 일생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세밀하게 담았다. 또한 우리나라에 사는 잠자리 가운데 꼭 알아야 할 잠자리 종류를 자세히 보여 주며 잠자리마다의 특징을 들려준다.

● 「물들숲 그림책」 시리즈

1. 『참나무는 참 좋다!』 이성실 글 · 권정선 그림
2. 『호박이 넝쿨째』 최경숙 글 · 이지현 그림
3. 『알록달록 무당벌레야』 이태수 글 · 그림
4. 『거미가 줄을 타고』 이성실 글 · 다호 그림
5. 『어흥어흥 여름치야』 이학영 글 · 김재홍 그림
6. 『사과가 주렁주렁』 최경숙 글 · 문종인 그림
7. 『어여쁜 각시붕어야』 김성호 글 · 윤봉선 그림
8. 『고추좀잠자리가 높이높이』 김황 글 · 김재희 그림

* 계속 출간됩니다.

<작가의 말>

아이들이 잘 아는 왕잠자리나 고추잠자리가 아닌 그다지 알려지지 않은 고추좀잠자리 이야기를 하는 것에는 큰 이유가 있습니다. 논과 고추좀잠자리의 관계를 강조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잠자리 가운데 논에서 날개돋이 하는 잠자리는 20%쯤 된다고 합니다. 그 가운데서도 가장 성공한 잠자리는 고추좀잠자리, 여름좀잠자리, 깃동잠자리입니다. 이 잠자리들은 논에 물이 들어가면 한꺼번에 알에서 깨어납니다. 7월에는 잠깐 눈물을 빼거나 농약을 뿌리는 일이 있는데, 그 전에 날개돋이를 해서 가을에 알을 논에 낳습니다. 알로 겨울을 나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논에는 잠자리 알이나 애벌레를 먹는 두려운 물고기가 없습니다. 논은 일정 기간 물이 있고, 무엇보다도 물벼룩, 실지렁이 같은 먹이가 많습니다. 먼 옛날 우리 선조가 농사를 시작하자 고추좀잠자리는 논에 맞추어서 자기를 진화시켜왔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고추잠자리같이 알로 겨울을 나는 잠자리는 겨울에 물이 없어지는 논에서는 살 수가 없어요. 왕잠자리, 밀잠자리 같은 잠자리는 날개돋이를 한지 2~3주일이 되면 성숙해서 짝짓기를 하고 알을 낳습니다. 그러면 왜 고추좀잠자리는 긴 여행을 떠날까요? 그것은 바로 서늘한 높은 산에서 자신의 성숙을 늦추어서, 가을에 짝짓기를 하고 논에 알을 낳기 위해서입니다. 고추좀잠자리의 삶의 중심에 논이 있는 거죠. 논이 없으면 못 삽니다. 요즘 고추좀잠자리 수가 급작스럽게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원인은 논이지요. 논이 줄어들거나 병들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논은 괜찮을까요? 논은 생산의 마당이자 훌륭한 습지이기도 합니다. 고추좀잠자리 이야기를 통해서 논의 중요성을 다시 강조하고 싶었습니다. 옛날부터 대대로 내려오는 황금색 벼 이삭 위를 고추좀잠자리가 날아가는 풍경을 지키자고 호소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 김황

〈화가의말〉

첫 번째 취재하던 날은 2011년 8월말이었어요. 잠자리를 담으려고 무작정 집 밖을 나갔고, 두리번거리며 찾아다녔어요.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공원이었는데 앉아서 쉬었다 날아다니는 잠자리가 굉장히 많았어요. 눈, 연못, 늪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 곳곳을 돌아다니며 쉽게 취재할 수 있겠구나 생각했지요. 하지만 빠른 비행 속도와 민첩성에 순간순간을 놓치곤 했어요. 또 잠자리 애벌레는 적으로부터 생존하기 위해 비밀스러운 장소에 있다 보니 볼 수 있는 날이 많지 않았어요. 잠자리가 없는 11월에 벼를 베는 행한 눈을 볼 때는 아직 깨지 않은 알들이 어디 숨어 있을까 생각하곤 했어요. 2012년 7월 초여름, 강원도 정선 할아버지 댁에 갔던 날이었어요. 이른 새벽 잠자리 날개돋이를 볼 수 있을까, 지나가는 잠자리는 없을까 하고 눈 주위를 뱅뱅 돌았지만 볼 수 없었어요. 포기하고 벼 사진만 몇 장 찍고 돌아오는데, 외양간 앞 소먹이로 베어 놓은 피 위에 고추잠자리가 앉아 있지 뭐예요. 이때다! 하고 신나게 50장쯤 사진을 찍으며 고추잠자리를 실컷 봤어요. 가을에는 짝짓기 하는 잠자리를, 잠자리를 볼 수 없는 봄과 겨울엔 벼가 베인 논, 잎 없는 나무를 취재했어요. 그림을 마친 뒤 어느 날이었어요. 이슬에 젖어 죽어 있는 잠자리를 보자, 알을 깨고 나와 여러 번 허물을 벗으며 힘겹게 살아남은 잠자리의 한살이가 떠올랐어요. 자연 환경을 좀 더 관찰하며 그냥 스쳐 지나쳤던 것들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겠다는 생각이 더욱 들어요. - 김재희

● 작가 소개

글·김황

1960년 일본 교토 시에서 제일 한국인 3세로 태어났다. 책을 통해 어린이들에게 동물과 교감하는 방법과 생명의 소중함을 알려 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06년 『코끼리 사쿠라』로 일본 아동문학자협회가 주최한 '제1회 어린이를 위한 감동 논픽션 대상'에서 최우수 작품상을 받았다. 우리나라에서는 『동물의 대이동』, 『인간의 오랜 친구 개』, 『꿀벌이 없으면 딸기를 못 먹는다고?』, 『등지상자』, 『우리 땅의 왕 늑대』, 『다람쥐』등을 냈으며, 일본에서는 『친구 동네에 황새가 날아온다』, 『기적의 바다를 매립하지 마세요!』등을 냈다.

그림·김재희

늘 자연을 접할 수 있는 강원도에서 태어났다. 지금은 강원도에 있는 박수근 미술관에서 사람들에게 좋은 그림을 소개하며 알리는 일을 하고 있다. 어릴 때 무언가 관찰을 하며 보고 그리는 것을 좋아했고, 자연스럽게 대학에서 서양화를 전공하게 되어 잠자리와의 인연을 맺게 되었다. 오랜 시간 동안 잠자리와 함께 한 여행 덕에 다시금 자연의 신비함과 고마움을 느꼈다고 한다.